

1. 소개

안녕하세요. 높은 점수는 아니지만, 저와 같은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자 후기를 쓰게 되었어요. 저는 지방 국립대에서 교직이수한 뒤 임용시험을 시작했고, 시험은 4번 쳤고, 제대로 공부한건 3년 정도 됩니다. 7월에서 10월 모의고사 등수는 14등부터 47등 왔다갔다했고(더 못한날도 분명었는데 정확한 등수자료가 없음ㅠ) 모의고사 성적은 계속 50점대 초반~후반 왔다갔다했는데, 시험장에서는 딱 50점나왔네요.

장의존형이라 스테디 많이 활용했고, 장소는 주로 도서관, 서브노트보단 교재와 심화자료 여러번 읽는 방향으로 공부했어요. 상반기는 인강, 하반기는 직강으로 들었습니다. 강사는 초수(전공 ㅈㅇㅈ, 교육학ㅇㅈㅎ), 재수(전공 ㅈㅇㅈ, 교육학 ㄱ표ㅎ), 삼수+사수(전공 위상, 교육학 ㄱㅎ) 입니다.

| | 교육학 | 전공 | 합격컷 | 2차(전남: 실기30, 면접50, 수업실연10) |
|----|-------|-------|----------|---|
| 초수 | 10 | 39.33 | | |
| 재수 | 15.67 | 44.33 | -26 (부산) | |
| 삼수 | 16 | 43.67 | +2 | 실기27.2 / 면접46.29/ 실연9.53 |
| 사수 | 16.33 | 50 | +5 | 실기27.73 / 면접47.41/ 실연8.8 실기 점수가 낮아서 간신히 컷으로 붙었어요..ㅠㅠ |

첫 시험에는 임용이란 시험에 대한 이해도 낮고, 정보도 작고 무엇을 공부해야할지를 잘 몰랐어요. 지방에서 혼자 인강으로 듣는데, 차가운 미술과 뜨거운 미술이란 용어도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고. 스테디는 초수라 들어가기 어렵고.. 미술교육은 거의 손도 못대고 서양미술사와 표현만 조금 공부한채로 시험쳤는데 솔직히 반포기상태였어요. 결과는 역시나 과락을 겨우 넘긴 점수였구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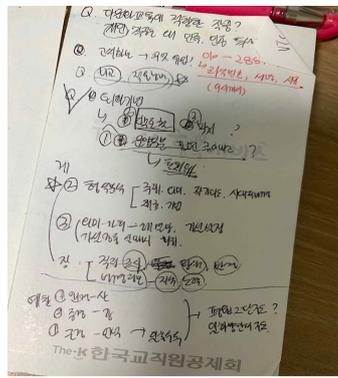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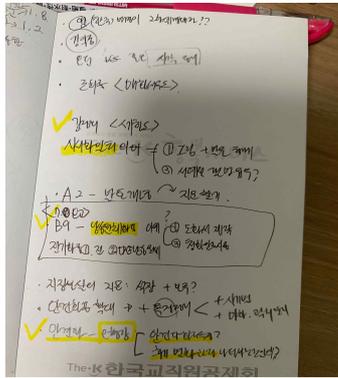
두번째 시험은 정말 독하게 해서 합격하리라는 마음으로 노량진으로 상경해서 고시원에서 밥먹으며 공부했지만 출제경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노력한 결과 컷 점수에 한참못미치는 점수로 떨어졌어요. 노력은 많이 했는데 합격과는 정말 먼.. 보잘것 없는 점수를 보니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 1월까지 푹 쉬다가 객관적으로 떨어진 이유를 생각해봤어요. 단순암기와 부족한 영역이 많았고, 기출도 어려운 문제는 전혀 다루지 않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영역을 깊게 공부할 수 있는 팀티칭의 강사를 고르게 되었고, 그리고 따로 서브노트를 만들지 않아도 될 정도로 깔끔한 교재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세번째 시험부터는 장샘이 알려주신 공부방법대로 전체적으로 공부하고, 항상 1순위부터 공부하고 2,3순위는 나중에 봤어요. 그리고 장샘이 항상 물어보는 표현특징, 표현매체, 표현방법, 주제, 제재, 사회적 배경, 미술적 배경 등 구분해서 정리하고 인출하는 연습을 했어요. 아마 매달 새로운 강의 들어가기전에 그 달에 맞는 공부법과 교재 복습 기간등 알려주실거예요. 만약 늦게 시작했거나 자신의 성향과 맞지 않는 스케줄이라면 자신에게 맞는 방향으로 수정하시거나 위상샘이 개인별로 스케줄 잘 짜주시니까 상담신청하셔서 계획하시길 추천합니다. 불합격요인은 초수와 재수때 느꼈던 요인이 많고, 합격은 삼수 1차합과 사수때 최합하면서 느낀 것들이 많으니, 고려해서 봐주세요.

2.

| | | |
|-----------|----------------|---|
| 불합격 요인 | 편협하게 영역공부하기 | 대부분 모든 수험생이 미술교육과 교육과정, 동양미술사 파트가 약할 거예요.. 전 남들보다 좀 더 약했는데, 이를 보완하기보단.. 원래 좀 더 나은 표현과 서양미술사에 집중했던게 잘못이었어요. 미술교육과 교육과정 한국미술사의 점수를 거의 날려먹은게 가장 큰 실패요인이 아닐까 싶어요. |
| | 마인드컨트롤 | 제가 시험불안이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더라고요. 그래서 7-8월까지 공부 질이 높고 9월부터는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시험까지도 이 부분은 완전히 고치지는 못했어요. 혹시라도 지금 공부하는 게 시험장에서 나오지 않을까? 그럼 한개라도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제 원래 페이스를 잃어버리고,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고 일찍 일어나는 것의 반복으로 육체적 피로감이 계속 쌓인 채로 시험장에 갔어요. 역시 |

| | | |
|------|-------------|--|
| | | <p>나 실수가 있었는데,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피로감이 커서 그런 것 같아요.</p> <p>마지막으로 갈수록 충분히 꼭 자서 시험장에서 최고의 컨디션으로 임할 수 있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실제로 제 스터디원은 마지막 달은 저녁먹기 전에 공부 마치고 집 가서 일찍 잠들고 조강도 해서 좋은 컨디션 만들어서 컷에서 한참 높은 점수로 합격하더라구요.</p> |
| | 서브노트 | <p>물론 서브노트를 통해서 합격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서브노트 만들었던게 독이 된 것 같아요. 회독은 빨라졌지만.. 저만의 사고의 갈혀서 출제경향과 달라진 공부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게다가 한 부분을 다양한 각도로 살펴볼 수 없어서, 점점 성장하는 계단식 공부가 아니라 제자리걸음하는 식이었어요. 게다가 한번에 많은 것을 보기 어려운 저는 교재를 여러 번 읽는 방법이 더 맞았어요.</p> <p>그리고 임용시험은 양이 워낙 방대하다보니 모든 정보를 담은 서브노트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쁘게 만드는 것은 안중요하지만 예쁘게 만들고싶은 욕구가 계속 생기더라구요.. 이렇게 되면 시간 무진장 잡아먹습니다ㅜ</p> |
| 합격요인 | 모든 영역을 꼼꼼하게 | <p>올해는 취약한 파트를 좀 더 열심히 공부하고 자신 있는 파트 또한 놓치지 않고 보아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췄어요. 미술교육과 교육과정, 한국미술사 부분은 정말 여러 번 강의를 듣고, 모르는 부분은 질문도 많이 해서 보충했어요.</p> <p>포현파트는 자신이 있었지만.. 전년도에 너무 과신한 나머지 판화에서 조각도를 니들로 적는 실수를 한터라 긴장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챙겨봤어요. 그리고 이미 다 외운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른 강사의 심화자료 중에서 처음 보는거나 중요할 것 같은 자료를 위상 심화프린트 사이에 끼워놓고 한번씩 봤어요. 자신의 실수 줄이고 위상팀의 기본자료에 충실하게 보면 다른 강사자료는 안봐도 크게 상관없어요. 특히 초수 시면 보지말라고 하고싶고, 너무 불안하시면 한번씩 보되 너무 열심히는 보지말라고 말해 드리고싶어요.</p> |
| 합격요인 | 질문하기 | <p>올해는 공부를 하루 하면 질문이 10개에서 많게는 30개도 생기더라구요. 이런 질문을 해결하는 방법은 먼저 인터넷이나 사전을 통해서 스스로 찾아보고, 조금 애매한 것들은 스터디원들과 얘기해서 답을 찾았어요.</p> <p>스터디안에서도 결론이 안나는 문제는 장쌤이나 위상쌤에게 질문해서 답을 찾고, 내가 이해한 문장으로 다시 적어서 교재에 부착해두었어요. 그리고 제가 낸 질문이 아니더라도 질문시간에 어떤 질문을 하는지 귀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희소사이트에 강의실에 올라오는 질문들과 답변도 살펴보았어요. 귀로 듣는 것보다 정리된 문장으로 읽으니 좀 더 정확하고 좋았고, 다들 굉장히 정확하게, 꼼꼼하게 공부하시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고 저도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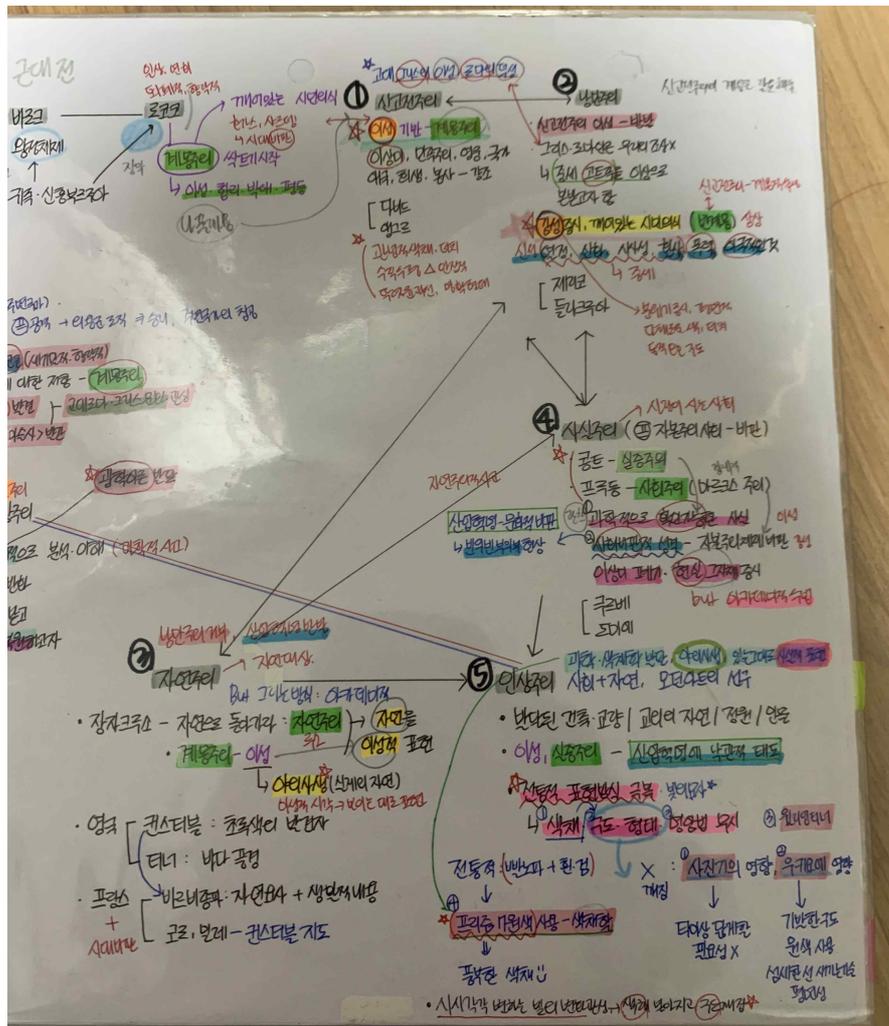


(궁금했던 것들 적는 노트였는데, 혼자 보는거라 글씨는 안에쁘네요..)

위상팀을 만나고 난 뒤 가장 많이 변한 저의 공부방법은 맥락적 배경과 함께 공부를 하게된 것 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미술사를 공부할 때 장삼이 가장 먼저 설명하는게 배경적 상황이라 종교입니다. 여기에 따른 표현특징, 기법, 제재, 구도 등 다양한 항목 들을 배경과 관련시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많은 양을 압축해서 공부할 수 있고, 사 고의 폭을 넓힐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배경적인 지식을 알고 나면 그 시대 그림 의 표현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쉬워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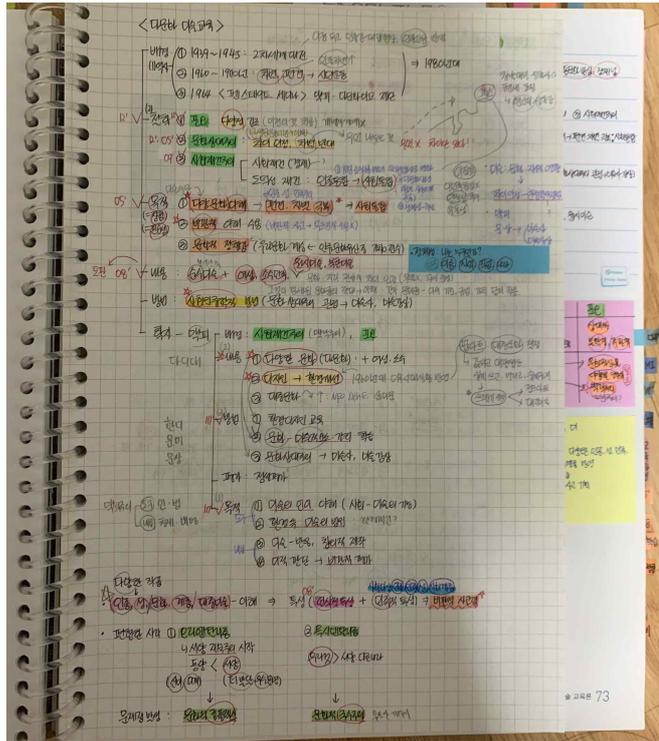
여러 필독서를 통해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샘이 간략하게 잘 설명해주세요. 저는 미 교와 한국미술사, 서양미술사, 디자인사의 맥락과 특징들 설명해주신 걸 한 장의 종이 에 정리하여 파일에 끼우거나 기본교재에 붙여두고 항상 먼저 보고 시작했어요.

맥락적 배경



파일에 따로 끼워두고 보던 맥락설명이구요(위상샘 서미사파트)

장샘 파트는 기본서에 같이 넣어서 제본했어요. 여기에 기출년도도 표시하고 뭐가 나올 수 있을지 예상해보면서 공부했어요.



시대별로 다른 특징들이나 재료별 특징들을 표 1장으로 정리하니 머리 속에 흩어진 지식들도 잘 정리되서 좋았습니다. 모든 영역을 이렇게 정리하기보단, 정리되면 좋겠다 싶은 부분만 따로 만들어서 파일에 넣어두고 봤어요. 이렇게 표로 만들면 기억에 많이 남기 때문에 여러 번 보지 않아도 기억이 잘 되었어요.

표로 정리하기

| | 연필 | 목 | 통목 | 수목 | 파스텔 | |
|-------|--|--|--|--|--|--|
| 재료 | 흑연+진흙 배합 | 나무가지 난화+숯 | 천연안료-굴린것 | | → 재가루안료 | |
| 장점 | - 선긋기 자유로움 - 농담, 명암 표현 - 수정 가능 - 심세 가능 | - 부드러운 명암 표현 - 수정 가능 - 미묘한 색조, 다양 칠감 | - 윤질, 광택 윤기 - 풍부 농담, 광택색조 - 다양한 명암 | - 선긋기, 농담, 색조 변화 - 부드러운 선, 선지느러미 - 스케치, 크로키 | - 매체도구 사용x, 정직유용 - 2부도구 사용 가능 - 색채효과 다양 - 은은 발색 | |
| 단점 | | - 세부 표현 - 픽시티브 | - 선상수 제한, 윤기 - 수정 어려움 | - 세밀, 묘사 - 자연스러운 명암단계 | - 선긋기, 선조, 선명, 선명 - 광택, 유화, 픽시티브 | |
| 연필 | ✓ 무연수제화 | ✓ 과슈 | ✓ 프레스코화 | 유화 | 아크릴화 | |
| 빈칸 | 아라비아 고무액 | 석회 | 달걀노른자, 흰자, 발효 | 빈칸 | 아크릴 수지, 유화 | |
| 전색제 | 물 | 물 | 물 | 물 | 물 | |
| 회색제 | 물 | 흰색 | 물 | 흰색 | 물 / 흰색 | |
| 명도 | 물 | 흰색 | 물 | 흰색 | 물 / 흰색 | |
| 장점 | - 맑고 경쾌 - 밝은색부터, 중색, 회색 - 색변지기, 롤러기 - 다양한 터치효과 | - 내광성, 내구성 - 선명, 가라앉은 부드러운 광택x - 광택x 건조후 밝아짐 - 다양한 대상 - 덧칠, 수정 용이 - 길고 중후, 질감 | - 회색이 마르기전 - 안료 회색수에 녹여그림 - 내구성 | ① 투명, 유화, 단색, 선명, 선명 ② 윤기, 윤기, 기법 모두 가능 ③ 선명, 선명, 선명 ④ 선명, 선명, 선명 ⑤ 선명, 선명, 선명 | - 물감내구성(기름, 내광성(안료)) ① 윤기, 질감 ② 선명, 선명, 선명 ③ 선명, 선명, 선명 ④ 선명, 선명, 선명 | ① 발색, 선명, 선명, 선명 ② 윤기, 질감, 선명 ③ 선명, 선명, 선명 ④ 선명, 선명, 선명 ⑤ 선명, 선명, 선명 |
| 단점 | - 길고 중후 질감 - 수정 - 보존성 | - 덧칠 지나치면 탁해짐 - 맑고 투명한 효과 | - 색조 섬세한 변화 - 지나치게 빨리 마름 - 수정 어려움 - 습기 취약 | - 건조 느림, 비후, 많이 - 건조 잘못시 - (회색) 색조 변화 - 중후성 (회색) 변질 우려 | ① 선명(지나치게 밝아 마름) ② 선명, 선명, 선명 - 수제화, 유화 효과 한계 | |
| 습식 재료 | 장점: ① 선명, 선명, 선명 ② 선명, 선명, 선명 ③ 선명, 선명, 선명 ④ 선명, 선명, 선명 ⑤ 선명, 선명, 선명 | 단점: ① 선명, 선명, 선명 ② 선명, 선명, 선명 ③ 선명, 선명, 선명 ④ 선명, 선명, 선명 ⑤ 선명, 선명, 선명 | 장점: ① 선명, 선명, 선명 ② 선명, 선명, 선명 ③ 선명, 선명, 선명 ④ 선명, 선명, 선명 ⑤ 선명, 선명, 선명 | 단점: ① 선명, 선명, 선명 ② 선명, 선명, 선명 ③ 선명, 선명, 선명 ④ 선명, 선명, 선명 ⑤ 선명, 선명, 선명 | 장점: ① 선명, 선명, 선명 ② 선명, 선명, 선명 ③ 선명, 선명, 선명 ④ 선명, 선명, 선명 ⑤ 선명, 선명, 선명 | |
| 장 | ① 선명, 선명, 선명 ② 선명, 선명, 선명 ③ 선명, 선명, 선명 ④ 선명, 선명, 선명 ⑤ 선명, 선명, 선명 | | | | | |
| 단 | ① 선명, 선명, 선명 ② 선명, 선명, 선명 ③ 선명, 선명, 선명 ④ 선명, 선명, 선명 ⑤ 선명, 선명, 선명 | | | | | |

스터디

저는 장의존형이고 스스로 한 약속을 잘 못지키는 타입이기 때문에 강제성을 가지고 자 스터디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 중 가장 좋았던 스터디는 생활스터디와 인출스터디, 문제풀이스터디 세 가지 입니다.

***생활스터디:**

매일 규칙적인 공부습관을 가지기위해 출책시간과 퇴책시간을 정해서 목표 공부시간을 달성하고자 했습니다. 그 시간안에 목표량을 달성하면 일찍 집에 가기도 했어요.

***인출 스터디:**

화요일은 미술교육을 공부하기로 짚스터디원과 약속했다면 그 날 공부한 부분에서 중요한 것을 문제로 만들어서 구두로 물어보고 바로 인출해보는 스터디입니다. 인출속도 빨라지고 문제를 만들기위해 드는 시간도 굉장히 작아서 효율적인 스터디였습니다. 다만 전 최단샘 수강생과 스터디를 꾸려서 하반기에는 서로 모르는 부분이 부담이 되어 하반기에는 아쉽게도 그만두게 되었지만, 같은 위상 수강생과 꾸렸다면 아마 끝까지 했을것 같아요.

***문제풀이 스터디:**

가장 좋았던 스터디인데요. 5월에 문제풀이 강의 시작과 함께 장샘이 만들어주셔서 시험 끝나기 전까지 계속 했습니다. 다행히 전부 좋은 스터디원들을 만나서 스터디안에서 좋은 공부 방향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하고, 요구파악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했습니다. 이 문제에 왜 꼭 이 답이 나와야하는지 논리적 구성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나누게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된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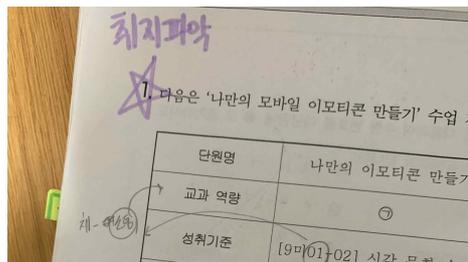
그리고 혼자 봤더라면 2번정도 밖에 못봤을텐데.. 당일날 스터디원과 복습하면서 한번 보고, 다음 주에 수업 직전에 복습스터디가 있어 학원가는 기차 안에서 한번 보고, 서로 질문에 대한 답 찾기 위해서 또 보고, 7월에 또 다시 한번 보고, 9월에도 다시 보고.. 이렇게 스터디원들과 회독 스케줄을 정해서 한 덕분에 여러 번 볼 수 있었어요. 많이 본 횟수로 하자면.. 56월 모고+기출 > 4월 7월모의고사 > 9.10.11월 모의고사> 78월 모의고사 순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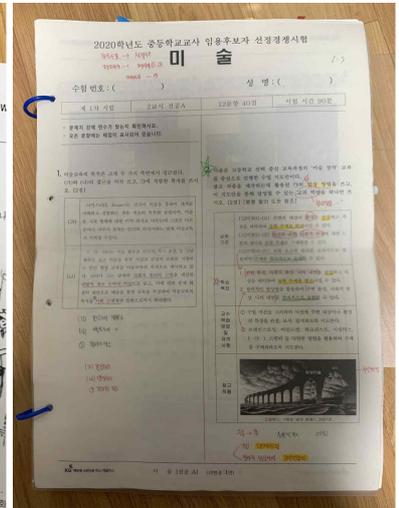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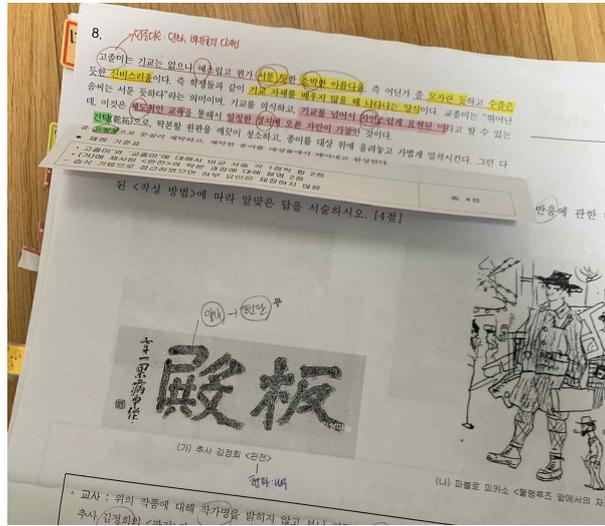
실전같은 모의고사 + 첨삭

처음 문제를 풀때는 난이도가 높다고 느끼기도 했고, 이런 것까지 물어보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덕분에 시험장에서 문제들이 어렵지 않게 느껴졌고, 세부적인 사진문제나 중국근대화파 문제에도 당황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림 읽는 법을 많이 배우기도 했고, 모고에서 응용하는 문제를 많이 풀어봤던 터라.. 모르는 문제도 아는 기본지식을 응용해서 적어냈습니다.

모의고사를 여러번 칠수록 인출되는 속도가 점점 빨라져서 시간이 모자란 기억은 별로 없었고, 되도록 반복되는 실수를 줄이고 깔끔한 문장으로 적어내려고 노력했어요. 특히 취지파악이 나갔던 문제들이 꽤 있어서 따로 체크해두고 여러번 보려고 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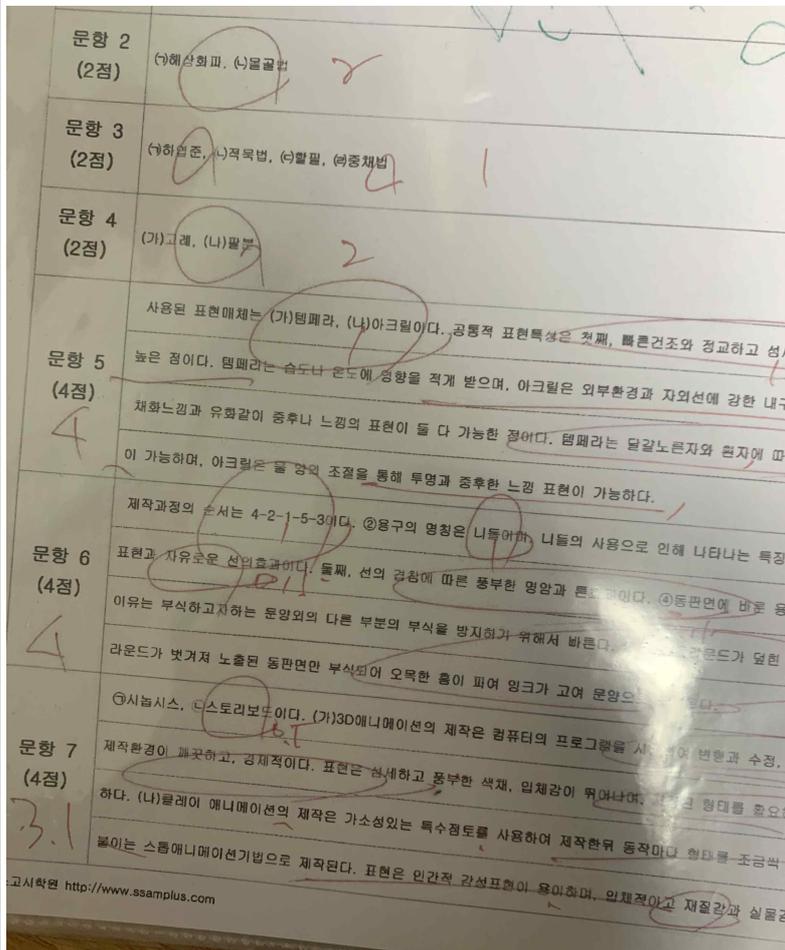


답을 적은 종이를 붙여두고 안보이게 반접어두고, 답을 입으로 인출해보고 답지보고 확인해보는 것을 반복했어요. 자꾸 반복해서 틀리는 문제는 틀리게 말하는 사고과정을 글로 적고 모범답안의 사고경로를 적어서 비교해보기도 하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해서 이런 답이 인출되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된다며 스스로 가르쳐보기도 했네요.

B4? 크기의 모의고사 용지가 컸지만 컬러사진을 부착해야하기도 하고 필기할 공간도 많기 때문에.. A4에 용지에 축소복사하지않고 그대로 보관했어요. 처음에는 스프링 제본으로 해서 보관했는데 도서관까지 가져가기가 무거워서 편지구멍에 고리로 묶어서 보관하고, 오늘 공부할 부분만 꺼내서 가져간 뒤에 공부가 끝나면 다시 넣었어요. 정말 정말 안외워진다 싶은 것은 A4로 복사해서 가져다니면서 봤어요.

모의고사에서 작년에 채점해주실때 틀린 부분 정정해주신 문제가 내세관 문제였는데, 그 부분이 문제로 딱 나와서 진짜 감사해하며 풀었어요^^ 올해는 처음으로 공개첨삭을 2회 받아봤는데.. 한번은 실력이 좀 올라갈 때 받아서 칭찬도 조금 받고 성장의 즐거움도 느꼈다면, 두번째는 다시 감 잃고 엉망진창으로 적어낼 때 받았어요. 혼자 셀프 채점했다면 충격적이지 않았을텐데 공개적으로 채점되서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다시 정신 바짝 차리는 계기가 되었어요. 조금 창피하더라도 분명히 얻어가게 있으니까 공개첨삭 꼭 해보시길 바랄게요.

| 문항 | 정답 | 정답 | 정답 |
|------|----|----|----|
| 문항 1 | 가 | 가 | 가 |
| 문항 2 | 나 | 나 | 나 |
| 문항 3 | 다 | 다 | 다 |
| 문항 4 | 라 | 라 | 라 |



마인드 컨트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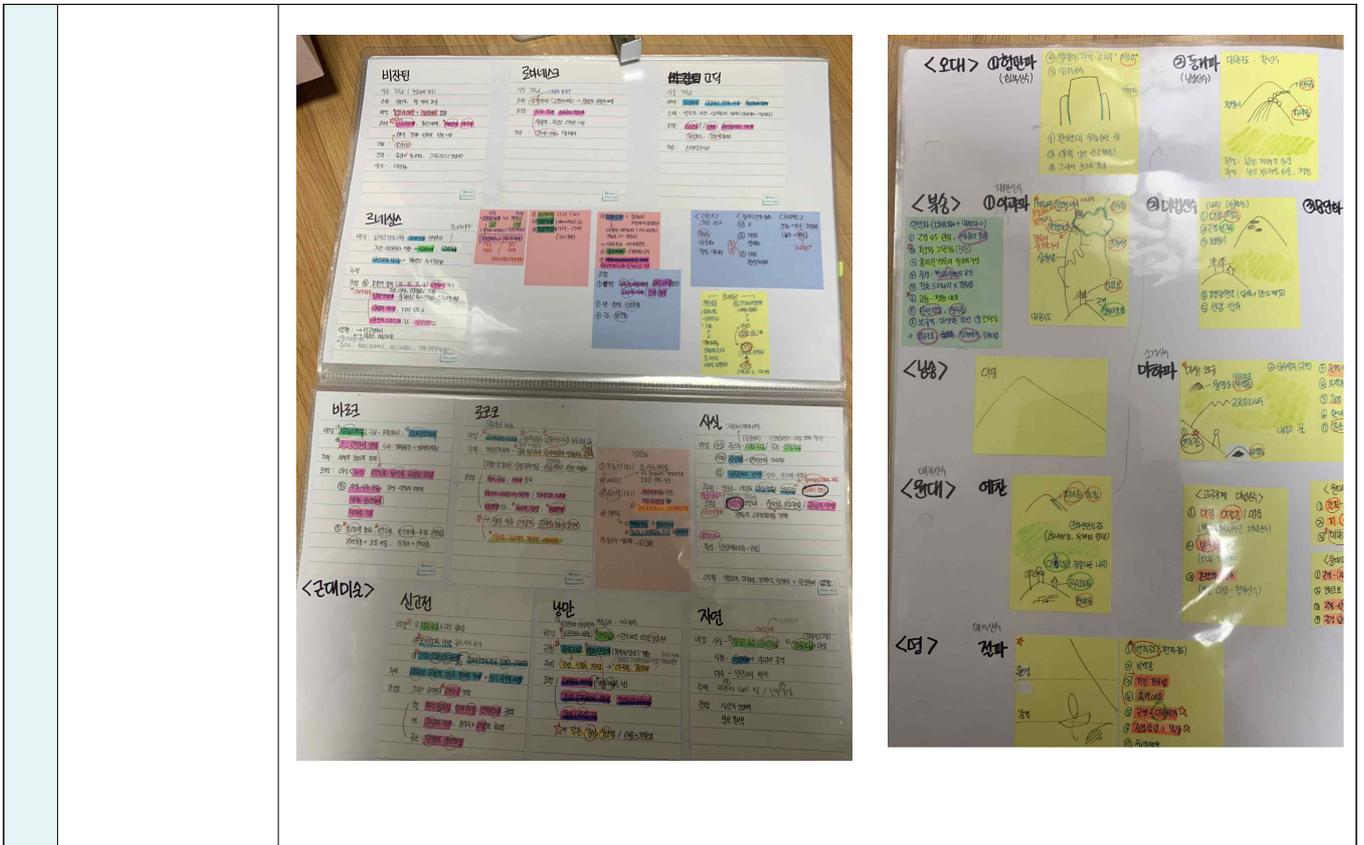
올해도 여전히 시험불안이 있었지만 전보다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나는 올해는 꼭 붙는다고 긍정적인 자기암시를 많이 했어요. 첫 상담 때 제가 쓴 답안과 공부한 자료를 보시더니 이대로만하면 너 올해는 붙을 수 있겠다.라고 말해주신게 진짜 큰 힘이 됐어요. 힘내라고 하신 말일 수도 있지만, 그 한마디가 그동안 떨어진 자신감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됐고, 올해는 붙을 수 있겠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종교가 없던 저지만, 장삼이 알려주신대로 기도도 많이 하고, 아무리 불안해도 떨어질 것 같다는 말은 하지말라고 하셔서 올해는 그런 입방정도 안떨고 조용히 지냈네요..

그리고 위상샘은 회독주거나 공부방향, 강의듣는 순서, 학습순서 등 저한테 맞게 꼼꼼하게 계획세워주셔서 좋았습니다.

시험불안은 웬만하면 실전같은 모의고사와 평소에 운동이나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통해서 극복하기가 좋아요. 만약 시험 전까지 극복이 안된다면.. 평소에 해왔던 공부와 노력의 시간이 시험불안을 이긴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 너무 불안해서 시험장에서 실력발휘가 충분히 안되더라도.. 평소에 올바른 방법으로 공부했다면 좋은 결과 있으실겁니다.

포스트잇으로
요점정리

서브노트를 만드는 대신 유용하게 사용한 것이 포스트잇인데요, 중요한 부분을 공부한 뒤 제가 이해한 것을 문장으로 정리해서 기본서나 심화자료에 붙여두고 반복해서 봤어요. 시험 마지막에는 A4용지로 옮겨서 한꺼번에 빠르게 봤어요.



2차

*면접

- 면접은 여러책을 보기보다 한가지 책을 선정하고 꼼꼼하게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요즘엔 워낙 유튜브에 좋은 면접강의들이 많아서 따로 강의를 돈내고 수강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저는 책보고 유튜브로 꿀팁 많이 얻고, 스테디를 통해서 많이 늘었어요. 특히 면접은 생각하는 시간만큼 말하는 시간도 많아야 해요.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교육적 용어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풍부하게 잘 전달하고, 말하는 속도나 톤, 표정등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면접장에 가면 굳어있는 면접관의 표정이나 분위기에 눌려 웃으며 말하기가 어려워서 평소에 웃으며 말하는 연습을 충분히 하시길 바랍니다.

*실기

저는 제가 전공실기가 아닌 지역에 치면서.. 과감하게 평달에 실기를 다니지않았어요. 1차 고득점만을 노리며 2차는 그때가서 열심히하면 된다는 마인드였는데, 임용은 어느 영역하나 부족하면 합격하기가 어렵습니다. 1차 초고득점하지않는다면 말이죠.. 그리고 작년에 대형학원을 다녀봐서 올해엔 지방에 소형학원에 다녔는데, 분위기도 다소 산만하고 같이 스테디할 임용샘이 안계셔서 시간을 알차게 쓰지는 못한점이 아쉬웠어요. 임용전문 실기학원을 다니시면 실기와 2차스터디를 준비하는 시간소모가 줄어서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실기가 부족하다보니 2차준비하면서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전공실기가 아닌 지역에 치신다면.. 평달에 기초를 쌓으시길 바랄게요. 평달에 매일 매일 풀로 열심히 할수는 없으니까 말이죠.

*실연

저는 수업목표달성과 아이들과 상호작용, 창의력역량을 높이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했어요. 중간 중간 수업목표가 잘 달성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아이들과 대화를 많이 하는 식으로 시연했어요. 그리고 모둠별로 의견 충돌이 있는 모둠, 진도가 빨라서 심화자료를 제시해주는 모둠, 창의적이고 엉뚱한 모둠, 지난 시간에 비해 성장

한 모듈 등 다양한 역할을 부여해서 수업을 진행했어요. 분위기는 괜찮았는데 아이디어스케치부분에서 작품을 서로 공유하거나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않고 급하게 마무리해서 감점이 된 것 같습니다.